

자영업 부문에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승 열*

I. 머리말

2011년 8월에 자영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3천 명 늘어나면서 시작된 증가 추세는 1년째 계속되었다. 2012년 7월의 자영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6천 명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이 8월 16일에 발표한 2012년 7월 고용동향 결과 중 언론은 자영업자 수의 지속적 증가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나홀로 자영업’ 대폭 늘었다」(내일신문, 2012. 8. 20), 「은퇴 베이비부머들의 ‘꼭꼭한 삶’ 남성 ‘나홀로 자영업’ 외환위기 이후 최대」(국민일보, 2012. 8. 21), 「남성 1인 자영업자 13년 만에 최대 증가」(세계일보, 2012. 8. 21), 「자영업자 폭발적 증가… ‘연쇄도산’ 현실화되나」(문화일보, 2012. 8. 21) 등의 기사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통계를 인용한 기사도 있었다. 「KDI, “분식집·제과점 생명 2.5년, 노래방은 4.4년”」(뉴시스, 2012. 8. 9), 「자영업 229만여 명 공급 과잉」(경향신문, 2012. 8. 15), 「생계형 창업 확산… 신설법인 수 역대 최대」(세계일보, 2012. 8. 20) 등이다.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자영업이 주목을 받았던 만큼이나 이른바 일자리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자영업을 다루는 기사도 많았다. 「가게문 열고 월 167만 원 못 버는 자영업 ‘수두룩」(연합뉴스, 2012. 8. 13), 「‘불황 직격탄’… 자영업 16% 폐업 위기」(세계일보, 2012. 8. 14) 등이다.

이상의 기사를 정리해볼 때, 최근 자영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둘째,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으로 진입하고 있다. 셋째, 자영업자의 증가로 자영업의 수익이 낮아져 폐업 위기에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eesy@kli.re.kr).

1) 이전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하였으나 지금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고 있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2008년 12월에 자영업자 수가 5,779천 명으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지자 언론에서는 이를 “자영업자 몰락”으로 표현하였다(이승렬, 2011). 이제는 다시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자영업자 몰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에 가까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수 증가 현상은 2011년 8월을 시점(始點)으로 하여 1년간 지속되었으니 머지않아 발표될 8월 고용동향이 참으로 궁금해진다. 8월은 부가조사가 실시되는 달이기도 하다. 부가조사에서는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 시기가 조사되는 만큼 최근 1년간 자영업 부문에 진입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8월 부가조사 결과는 최근의 자영업자 추이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은 36개월간 유지된다. 2012년 8월에 조사된 응답자는 적어도 2009년 9월부터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 출생자를 일컫고 있으므로 2009년 9월이면 이들은 46~54세 정도였을 것이다. 한국의 평균퇴직연령이 53세이며(금재호, 2012), 중소기업의 경우는 51세라 하는 만큼(경향신문, 2012. 6. 14)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을 앞두고거나 퇴직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에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표본을 패널자료(panel data)로 만든다면,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을 제2의 직업으로 삼게 되었는지도 확인된다.

8월 부가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글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2011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1년간의 자영업 부문 증가세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본다. 이 관찰로부터 자영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자영업 부문 일자리의 장기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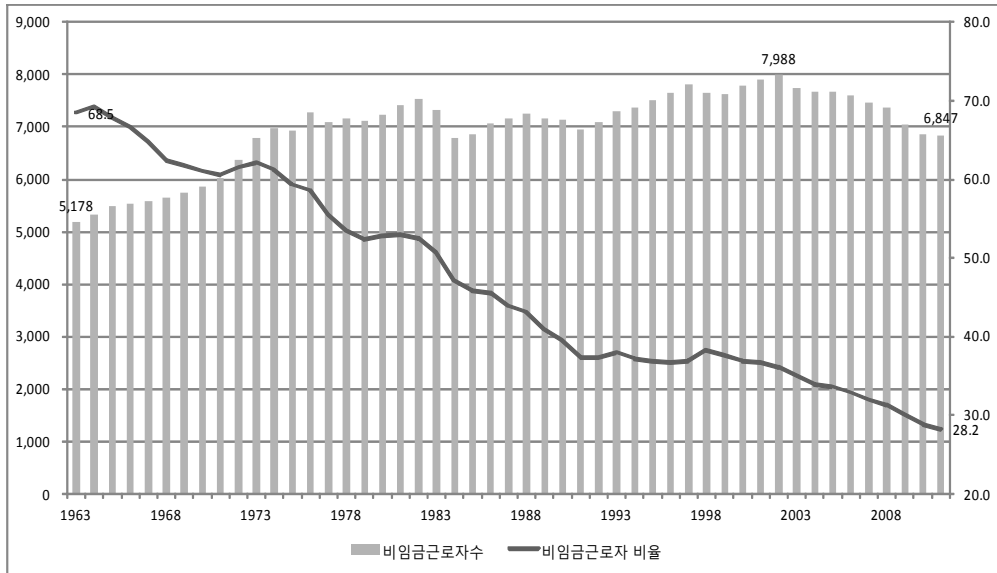
1. 비임금근로자의 장기적 추이

먼저 관찰대상을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로 넓혀서 이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재형(2012)은 “최근의 영세사업자 문제는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p.1)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가 취업자 전체에서

2)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은 매월 1/36씩 교체되므로 2012년 8월 조사의 경우에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표본이 1/36씩 분포한다.

[그림 1] 비임금근로자 수·비율 추이(1963~2011)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KOSIS.

차지하는 비율은 1963년에 68.5%였다. 말하자면,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자영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63년 당시 취업자 7,563천 명 가운데 63.0%인 4,763천 명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비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인다. 1984년에 47.1%로 드디어 비임금근로자가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대로 떨어지게 되었다. 1990년에는 39.5%로 30%대로 진입하고, 하락 추세는 지속되다 1997년과 1998년에 36.8%와 38.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하는 일시적 현상을 보인다. 이는 1997년 말의 구조조정이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1999년부터는 다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 28.8%로 20%대로 낮아진 뒤 2011년에 28.2%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연도별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일시적 등락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비임금근로자 수를 보면, 1997년의 7,810천 명이 정점을 보이면서 이때까지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이후로는 감소 추세이며, 2000년, 2001년, 2005년에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일 뿐 2003년, 2009년, 2010년에 각각 전년대비 252천 명, 319천 명, 194천 명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른바 ‘자영업 몰락’을 제목으로 하는 신문기사가 등장 하였던 시기이다. 1976년의 비임금근로자 수가 7,273천 명으로 700만 명대에 올라서고, 1984년(6,798천 명), 1985년(6,866천 명), 1991년(6,950천 명)을 제외하고는 700만 명대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 6,858천 명으로 다시 600만 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2011년에는 비임금근로자 수가 6,847천 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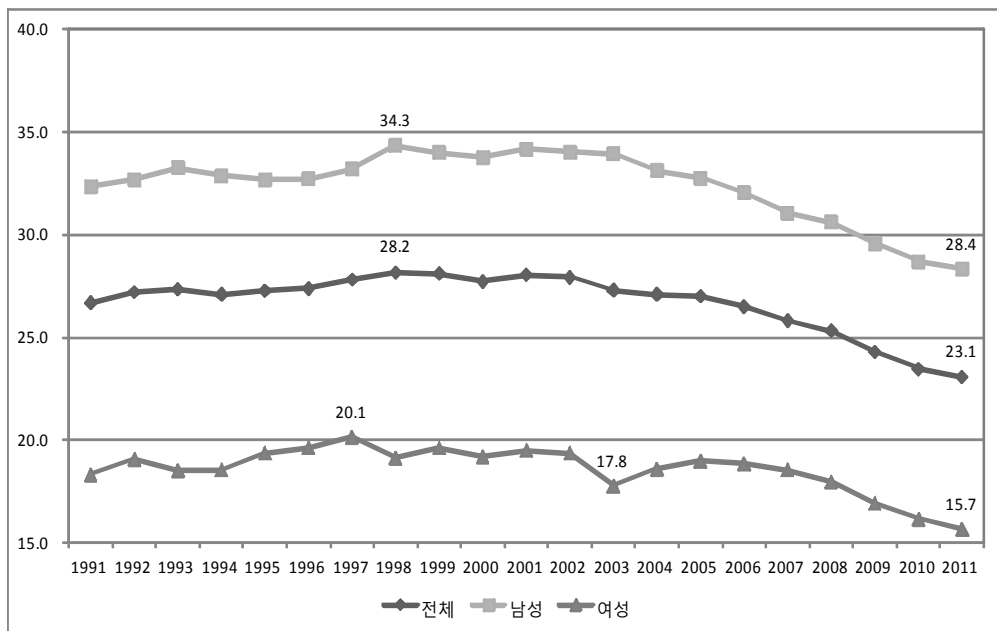
2012년 1월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 수가 6,548천 명이었고, 7월 현재 7,196천 명이니 2000년 이후로 2012년에는 비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가 앞으로 비임금근로자 수의 지속적 증가를 나타내는 단초가 될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려우나 2012년 8월의 부가조사 결과가 이 추이의 방향을 알려주리라 본다.

2. 자영업자의 장기적 추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에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시기를 좁혀 1991년부터 최근까지 자영업자 비율(자영업자 수/취업자 수×100)을 계산해 보았다(그림 2 참조).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1998년의 34.3%가 정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이전에 이 비율이 약간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카드대란 이후 2003년부터는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있었다. 2011년의 비율은 28.4%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1997년의 20.1%가 정점이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03년에 17.8%로

[그림 2] 성별 자영업자 비율 추이(1991~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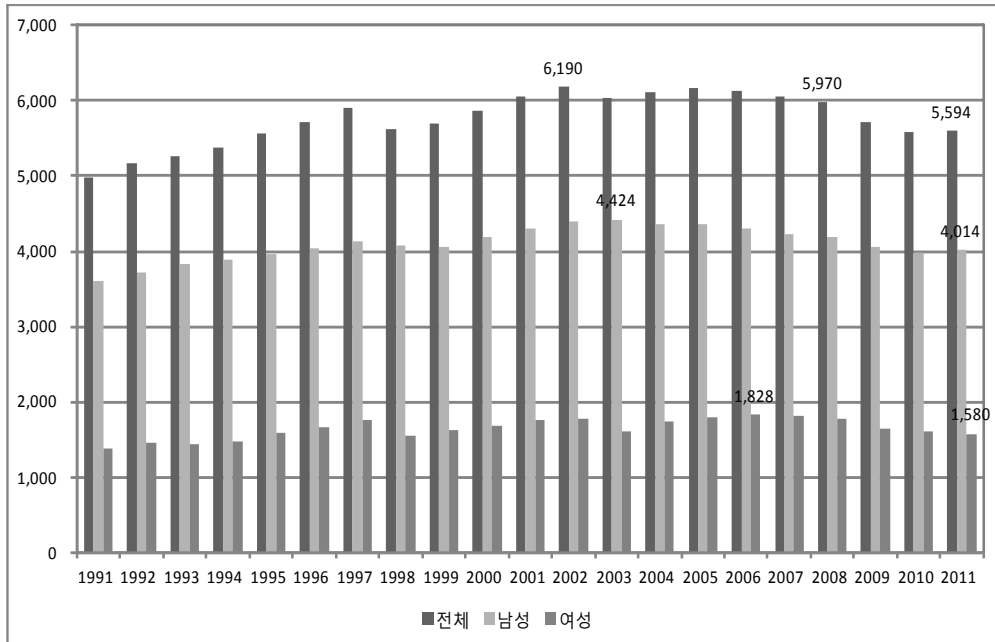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성별 자영업자 수 추이(1991~2011)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잠깐 떨어진 뒤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6년부터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 15.7%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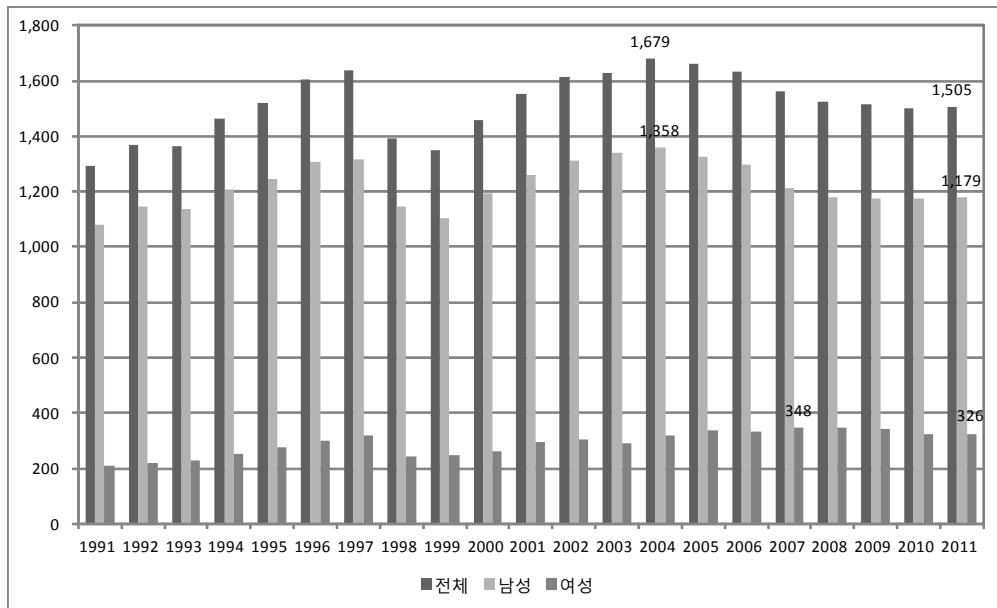
자영업자 수는 1990년대에 증가하다가 1998년에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 정점(6,190천 명)에 이른다.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에 5,970천 명으로 6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1년에 5,594천 명을 기록하였다. 2010년은 5,592천 명이어서 1년 사이에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2012년이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 2년 연속으로 자영업자 수는 늘어난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여성은 2006년에 1,828천 명으로 정점을 보인 뒤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는 2003년에 4,424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에 여성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다가 2011년에 4,014천 명으로 전년대비 22천 명 증가하였다. 남성 자영업자의 증가를 여성 자영업자 감소(전년대비 21천 명)가 상쇄한 셈이다. 참고로 취업자 수는 2011년에 전년대비 415천 명(남성과 여성은 각각 238천 명과 177천 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 자영업자의 증가보다는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³⁾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른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른바

3) 다만 고용원이 없는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 사실을 통계로 관찰해 준 본원 김복순 책임연구원에 감사드린다.

[그림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추이(1991~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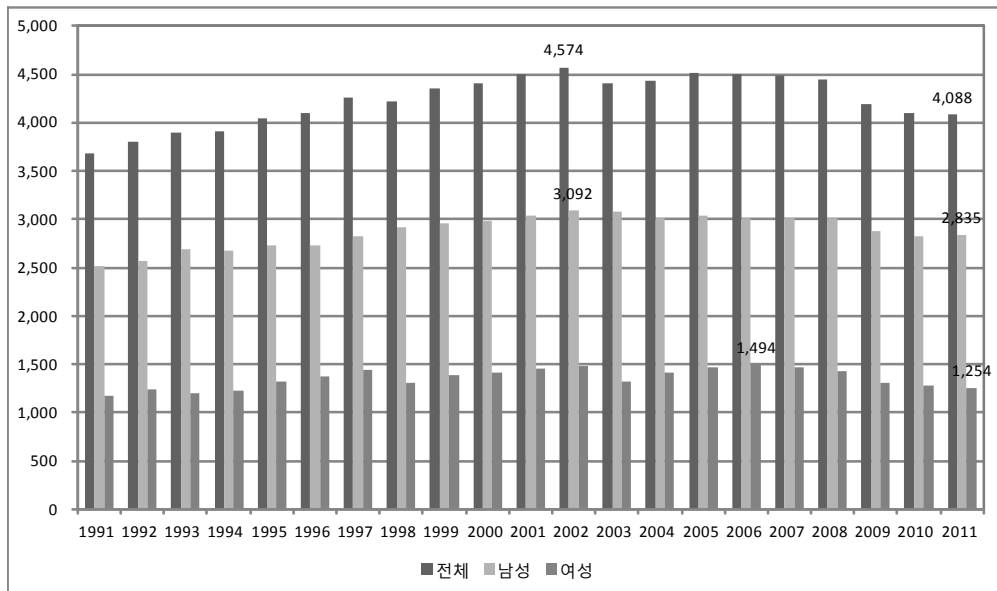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추이(1991~2011)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전체를 볼 때, 자영업자 수의 정점은 1,679천 명(2004년)이다. 이후에 감소하나 2011년은 1,505천 명으로 전년대비 6천 명 증가하였다. 남성은 5천 명, 여성은 1천 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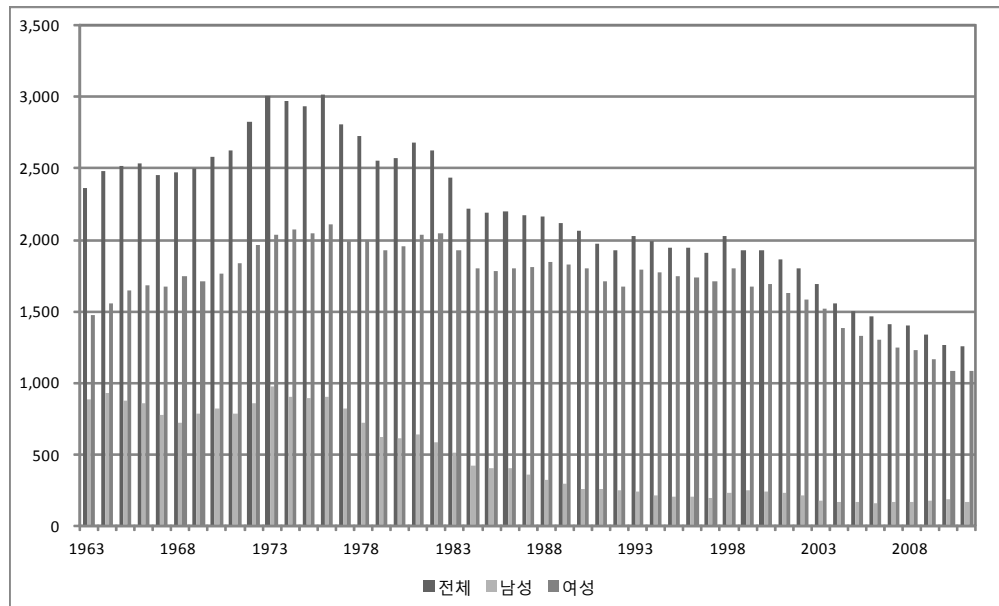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2002년이 정점이다. 자영업자 수가 2002년에 4,574천 명이었으나 이 뒤로는 계속 줄어든다. 2011년에는 4,088천 명으로 전년대비 5천 명 감소하였다. 남성은 17천 명 증가하였으나 여성이 22천 명 감소하였다. 이처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여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2011년의 특성 중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영업자를 돕는 역할의 무급가족종사자로 넘어가기로 하자. 무급가족종사자는 1963년부터 살펴보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976년의 3,015천 명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간다는 사실도 볼 수 있다. 그림을 보기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근에 오면 남성의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에 전년대비 1천 명 증가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장기적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성장과 함께 취업자 가운데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비록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경제성장이 다른 선진국보다 짧은 시기

[그림 6] 무급가족종사자 수 추이(1963~2011)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에 진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시장이 이에 서서히 적응해 왔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감소하던 비임금근로자 수는 2011년의 경우에 취업자 수가 증가함에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 수의 감소와 고용원이 없는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와 관련된다. 반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남성 자영업자는 큰 수치는 아니지만 2011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제 아래에서는 최근 1년간의 월별 관찰을 통하여 자영업자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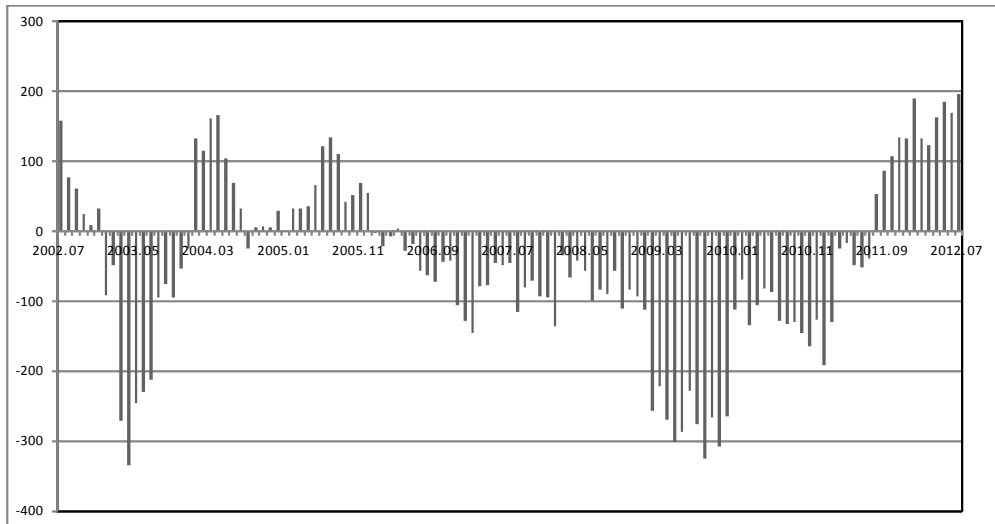
Ⅲ. 자영업자 수의 최근 1년간 월별 변동이 보이는 특성

1. 자영업자의 최근 상황

자영업자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수치로 볼 때,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2003년 1~12월에 12개월간 감소를 보인 뒤 2006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5년 3개월간 감소 추세를 지속하였다. 2011년 8월에 53천 명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증가 추세는 2012년 7월까지 12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이 증가가 신규진입과 관련되는지는 월별 조사에서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알 수

[그림 7] 자영업자 수 증감 추이(2002. 7~2012. 7, 전년동월대비)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성별·월별 자영업자 증감 추이(2011. 8~2012. 7)

(단위: 천 명)

	자영업자 전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11. 8	53	37	17	14	25	-11	39	12	27
9	88	44	44	28	13	15	60	31	29
10	107	50	57	35	9	26	72	41	32
11	135	79	56	36	14	22	100	65	34
12	133	87	47	57	42	16	76	44	31
2012. 1	190	102	88	69	37	32	120	66	56
2	133	103	30	53	36	16	80	66	14
3	124	88	36	57	34	23	67	54	12
4	163	119	44	99	71	28	64	48	16
5	186	160	26	113	91	23	73	70	4
6	169	164	6	93	71	23	76	93	-16
7	196	182	15	63	40	22	134	141	-8

자료: 통계청, KOSIS.

없다.4)

하지만 최근 1년간의 자영업자 증가 이전에 2006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63개월간 전년동월대비 감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6년 4월에 전년동월대비 4천 명 증가하였으나 감소는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감소는 또 앞선 시기에 2004년 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가 2년간 지속되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5) 이 증감은 200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업자의 최근 1년간 증가 추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만 여성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2012년 6월과 7월 각각 16천 명과 8천 명이 감소하였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최근 1년간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2012년 4~6월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가 5인 미만6)인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명확하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4) 월별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일자리를 시작한 시기를 조사하고 있으나,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5) 2004년 4월에만 한 차례 자영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24천 명 감소하였다.

6)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종사자 수에 대해서는 “다니시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고, 응답에 “1. 1~4인, 2. 5~9인, 3. 10~29인, 4. 30~99인, 5. 100~299인, 6. 300~499인, 7. 500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자료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1~4인)로 분류

30~99인의 사업체 규모를 가진 자영업자 수는 최근 1년간 전년동월대비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100~299인의 사업체 규모를 가진 자영업자 수는 정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0~29인의 사업체 규모를 가진 자영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3개월간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5~9인의 사업체 규모를 가진 자영업자 수는 2012년 3월까지 감소하다가 4월부터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체 규모 간 증감이 다른 배경에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 조정에 있는 것인지 해당하는 사업체 규모의 집단에 신규진입이 있었던 것인지는 이 통계로 알 수 없다. 다만 이 결과로 볼 때,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는 축소되거나 소규모 중심의 창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업종으로는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도 증가 추세가 시작되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는 2012년 3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다. 반대로 제조업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농림어업은 2012년 5월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 증감 추세를 보면, 생산성이 높지 않은 쪽에 드는 업종에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2〉 사업체규모별·월별 자영업자 증감 추이(2011. 8~2012. 7)

(단위: 천 명)

	고용원 없음	고용원 있음	규모별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2011. 8	14	39	39	-19	21	-2	1	53
9	27	61	69	-16	10	-3	1	88
10	35	72	72	-12	17	-6	1	107
11	36	99	123	-27	11	-8	-1	135
12	57	75	95	-31	18	-6	-1	133
2012. 1	69	121	128	-24	24	-7	0	190
2	53	80	102	-38	24	-7	0	133
3	57	67	80	-17	11	-6	0	124
4	99	64	58	8	5	-6	0	163
5	113	73	75	5	-2	-6	0	186
6	93	76	77	10	-5	-6	0	169
7	62	133	133	19	-16	-2	-1	1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월.

되고 있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종사자 수가 4인이면 자영업자 자신을 포함하여 5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표 3〉 업종별·월별 자영업자 증감 추이(2011. 8~2012. 7)

(단위: 천 명)

	2011					2012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농림어업	-21	-11	-13	-20	-4	23	-10	-36	-9	-1	6	19
광업	0	0	0	-1	-1	-1	-1	-1	-1	-1	-1	0
제조업	3	7	4	-4	-8	-11	-8	-18	-10	-8	-10	-25
전기·가스·증기·수도업	-1	0	-1	-1	0	0	0	-1	0	0	0	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1	-2	0	3	-1	0	0	-1	1	1	-1	0
건설업	-8	6	23	38	33	34	39	41	54	53	52	50
도매·소매업	13	40	36	40	64	65	42	39	49	68	45	35
운수업	45	41	36	33	34	27	17	19	18	20	13	31
숙박·음식점업	34	40	36	62	53	68	66	61	44	38	41	2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2	3	4	2	3	1	3	-6	-11	-14	-14	-2
금융·보험업	9	8	8	7	5	5	7	6	6	5	6	1
부동산·임대업	-7	-8	-15	-10	-12	-3	-5	-2	2	-3	2	6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3	-16	-6	-5	3	8	3	11	14	10	20	2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0	-6	-10	-12	-13	-11	-8	-6	-3	1	-3	-3
교육서비스업	-22	-35	-17	-18	-17	-5	-2	7	13	14	15	3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4	-6	-4	-3	-7	-2	-10	-3	-4	-5	-4	-2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1	21	13	13	7	0	8	12	7	-2	-9	-8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	2	3	12	12	-4	-8	-8	2	-10	5	6	14
가구내 고용활동·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3	-1	-1	-1	1	1	1	5	5	5	1
전 체	53	88	107	135	133	190	133	124	163	186	169	1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월.

연령별 자영업자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50~59세와 60세 이상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보였다. 이 결과로부터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으로 나서게 되었음을 언론매체에서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주축에 드는 40~49세가 2012년 5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30~39세의 경우에도 유사하여서 2012년 4월까지의 감소를 계속하다가 5월부터 약간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떠난 30대와 40대의 자영업 일자리를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채우고 있으며, 나아가 그 이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서는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으로 진입하고 있음에 주목하나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30, 40대의 자영업자가 자영업 부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고령자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30, 40대의 자영업자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앞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⁷⁾ 이 사실의 확인이야말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을 재정립하는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4〉 연령별·월별 자영업자 증감 추이(2011. 8~2012. 7)

(단위: 천 명)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2011. 8	-1	18	-117	-16	89	80	53
9	-3	12	-90	-23	107	85	88
10	0	27	-70	-18	92	77	107
11	-5	25	-35	-20	98	73	135
12	-5	21	-36	-22	104	72	133
2012. 1	-7	28	-44	-13	130	96	190
2	0	21	-44	-21	109	69	133
3	1	15	-18	-20	99	47	124
4	-3	15	-3	-18	90	82	163
5	-3	9	13	12	59	97	186
6	-4	8	25	-7	47	100	169
7	-5	12	28	-4	62	103	19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월.

이에 따라 30대와 40대의 자영업자가 최근 1년간 보이는 월별 변동을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2012년 7월을 제외하고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2012년 3월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4월이 되자 감소 추세가 멈춘다. 그러고는 5월에 33천 명의 증가를 보이고, 6월에는 18천 명의 증가를 보였다. 7월에는 다시 1천 명 감소하였다. 이를 상쇄하듯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가 7월에 19천 명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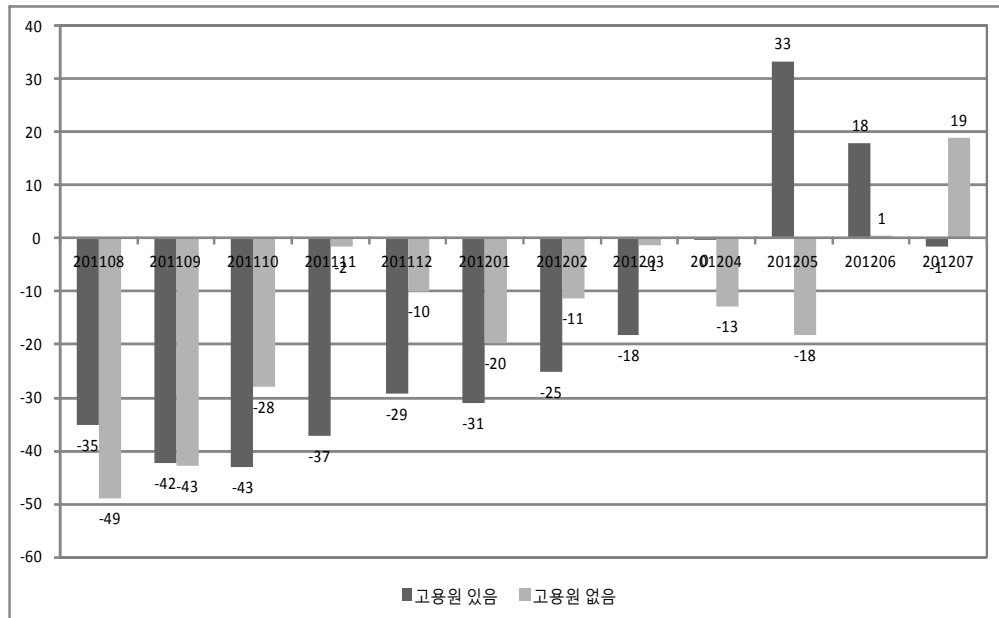
7)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책임연구원의 통계 관찰로는 2010년 8월~2011년 7월과 2011년 8월~2012년 7월을 비교하였을 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이전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였던 경우는 16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30, 40대 자영업자의 이직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부표 참조).

여성의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일관되게 최근 1년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1년에 연간 평균으로 여성 자영업자가 전년대비 감소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1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개월간 증가한다. 2011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4천 명과 10천 명이 증가하였다. 2012년 2월에 다시 8천 명의 감소를 보인 뒤에 3월부터 회복하여 7월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5월에는 13천 명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에 2012년 5월과 6월에만 증가하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비교를 위하여 50세 이상 자영업자 월별 변동도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여성 자영업자 수가 2012년 6월 1천 명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고용원유무별 남성 30, 40대 자영업자 증감 추이(2011. 8~20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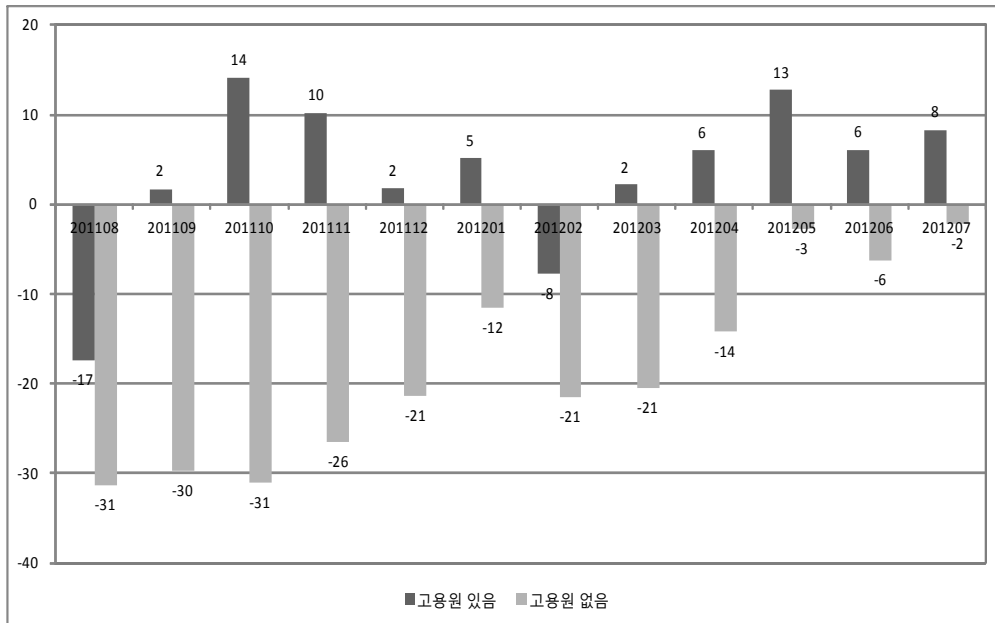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월.

[그림 9] 고용원유무별 여성 30,40대 자영업자 증감 추이(2011.8~2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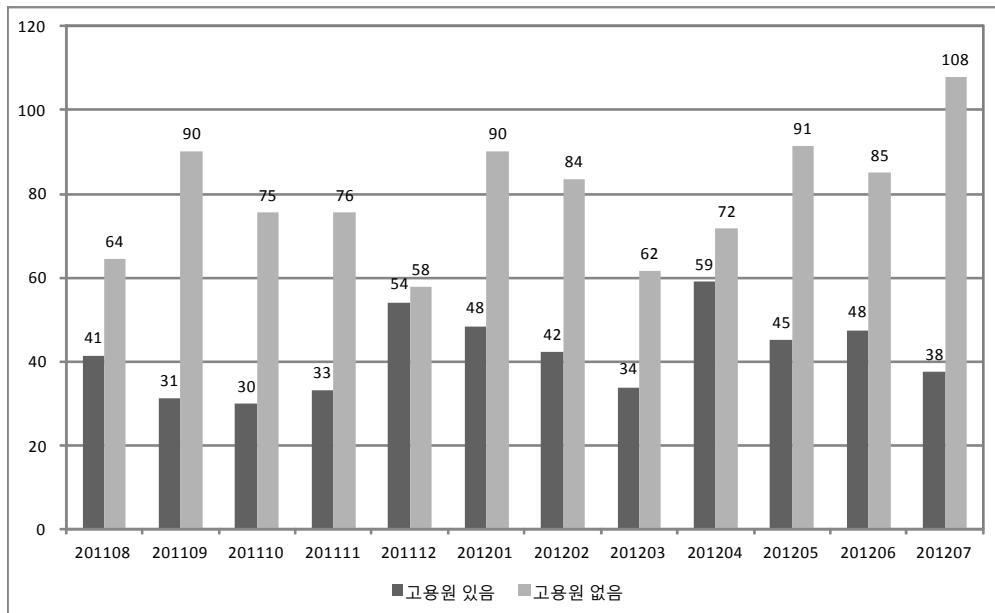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월.

[그림 10] 고용원유무별 남성 5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감 추이(2011.8~2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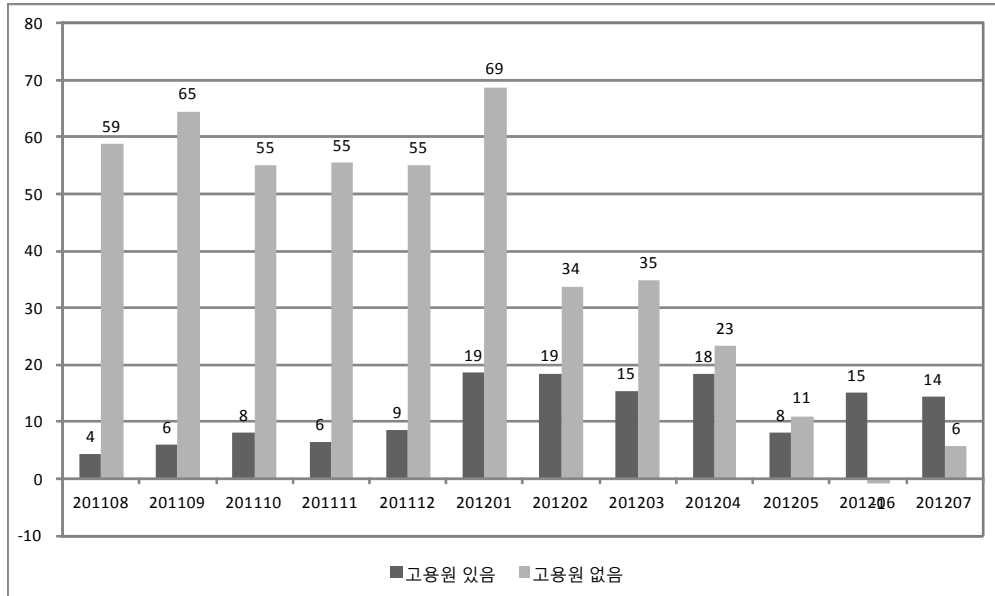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월.

[그림 11] 고용원유무별 여성 5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감 추이(2011. 8~2012. 7)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당 연월.

IV. 맺음말

자영업 부문 종사자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1998년 말 이후의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중고령근로자가 창업으로 탈출구를 찾으려다. 2002년의 카드대란이 자영업 부문에 충격을 주면서 정부는 2005년 이른바 '5·31대책'이라는 자영업 종합 대책을 수립·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5·31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자영업 부문 이탈자에 대한 취업촉진대책과 고용보험 대책이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2009년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가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8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자영업자에게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의 5·31대책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실행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이제 내실화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면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자영업 부문으로 넘

어은 것으로 여러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장기적 추세와 지난 1년간의 월별 변동을 관찰하였다. 이 관찰로부터 얻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년간의 월별 변동에서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로 증가하였음을 볼 때, 2012년의 자영업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감소 추세에서 일시적 증가를 경험한 적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결과가 자영업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은 3년간 유지가 되는 만큼 이들을 일종의 패널 자료로 만들어 최근 진입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관찰해 보는 작업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 작업의 결과는 향후 자영업자 대책에 많은 시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 추세에서 볼 때,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가 눈에 띈다. 이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더욱이 여성의 경우는 최근 1년간 월별 변동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0, 4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어떠한 특성의 소유자인지 어떠한 연유로 이른바 ‘사장님’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자영업자 대책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사안이기도 하다.

셋째, 업종의 경우에 최근 1년간 월별 변동에서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비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의 과당경쟁과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신문 기사 내용은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사업체 규모의 변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책 당국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패널자료로 만드는 경우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사업체 규모의 변동이 기존의 자영업자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인지, 신규로 진입한 자영업자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최근 1년간 변동에서 보면, 30대와 40대가 자영업 부문에서 이탈하고,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 자리를 메워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자영업 부문의 주축도 고령자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규진입자가 이전보다 고급 기술과 자금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영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 게다가 신규진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글은 최근 1년간 자영업자 증가라는 사실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자세한 분석은 8월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가능하게 된다.

최근 1년간 자영업자 증가라는 사실에 언론은 많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로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30, 40대의 감소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50인 미만의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기사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2만 2천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머니투데이, 2012. 8. 28). 이 제도는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므로 내년이 되어야 실질적 수혜가 있게 될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주에게도 가입이 허용되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일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의 증감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금재호(2012),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2011), 『지난 10년간의 자영업을 되돌아본다』, 『노동리뷰』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3.
- 이재형(2012), 『영세사업자의 실태』, 『KDI FOCUS』 20, pp.1~8.
- 경향신문, 『중소기업, 정년 있는 곳 5곳 중 3곳, 평균 정년은?』, 2012. 6. 14.
- _____, 『자영업 229만여 명 공급 과잉 대안 직종으로 일자리 늘리자』, 2012. 8. 15.
- 국민일보, 『은퇴 베이비부머들의 ‘꽉꽉한 삶’ 남성 ‘나홀로 자영업’ 외환위기 이후 최다』, 2012. 8. 21.
- 내일신문, 『‘나홀로 자영업’ 대폭 늘었다』, 2012. 8. 20.
- 뉴스스, 『KDI, “분식집·제과점 생명 2.5년, 노래방은 4.4년”』, 2012. 8. 9.
- 머니투데이, 『자영업 대책, 정부는 ‘히트’ 쳤는데 자영업자는 ‘금시초문’』, 2012. 8. 28.
- 문화일보, 『자영업자 폭발적 증가… ‘연쇄도산’ 현실화되나』, 2012. 8. 21.
- 세계일보, 『‘불황 직격탄’ … 자영업 16% 폐업 위기』, 2012. 8. 14.
- _____, 『생계형 창업 확산… 신설법인 수 역대 최대』, 2012. 8. 20.
- _____, 『남성 1인 자영업자 13년 만에 최대 증가』, 2012. 8. 21.
- 연합뉴스, 『가게문 열고 월 167만 원 못 버는 자영업 ‘수두룩’』, 2012. 8. 13.

〈부표〉 지난 1년간 30, 40대 자영업자의 이직 실태

(단위: 천 명)

		총취업자 수	순입직	총입직	총이직	실업비경할	취업
2010. 8~2011. 7	20세 미만	10	0	118	118	36	82
	20~29세	175	-22	2,096	2,118	562	1,556
	30~39세	834	-75	10,009	10,084	874	9,210
	40~49세	1,623	-82	19,480	19,562	973	18,589
	50~59세	1,643	45	19,717	19,672	1,246	18,426
	60세 이상	1,265	33	15,186	15,152	2,152	13,000
2011. 8~2012. 7	20세 미만	7	-3	83	86	62	24
	20~29세	192	18	2,307	2,289	606	1,683
	30~39세	801	-33	9,617	9,649	683	8,966
	40~49세	1,609	-14	19,310	19,324	803	18,521
	50~59세	1,734	90	20,802	20,712	1,080	19,632
	60세 이상	1,347	82	16,166	16,084	2,073	14,011